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본격화...광주·전남 보폭 맞춰라

시, 35곳 후보군 유치전 돌입
도, 농·수협 등 40곳 행정력 집중
"경쟁치열, 공동 대응" 여론 비등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시도가 파급효과가 큰 타깃 기관을 정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각자 지향점이 다른데다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 개념의 공동 대응 등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유치할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과 향후 전략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최우선 유치 목표로 삼은 광주시는 지역특화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

35곳을 후보군에 올려놓은 상태다.

전남도도 농협·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0여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2018년부터 민간 전남 조직을 운영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공을 들여왔다.

핵심 타깃은 농협·수협중앙회로, 본사 유치 이후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전남도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도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물론 시군 의장협의회, 농업인단체연합회, 수협협의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에서도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유치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당장 농협의 전남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는 '중앙회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 기자



국립공원지정 10주년을 맞아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진행된 지난 4일 오전 서석대를 거쳐 지왕봉에 도착한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비경 만끽'

방공포대 철수 9월 상시 개방
강 시장 "오롯이 시민품으로"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에 구름인파가 몰려 무등산의 비경을 만끽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올 들어 처음이자, 2011년 5월 이후 26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과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기념해 무등산이 세계 명산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마련됐고,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한 이래 최초로 다문화가족에게 출입이 허용됐다.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인왕봉과 지왕봉을 관망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무등산 정상부 900m 코스였다. 이날 인왕봉과 지왕봉에 오른 정상 탐방객

은 3,000명에 이르렀고, 무등산을 찾은 전체 탐방객은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념해 무등산 정상부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진관, 무등산 캐릭터 인형과 사진 촬영,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탐방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강기정 시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병구 광산구청장 등은 무등산 정상에서 4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도 응원했다.

강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성공을 무등산 정상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무등산을 아끼고 지켜주는 공민 관계자와 환경단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

했다.

이어 "오는 9월 무등산 정상에 활짝 열리고 방공포대도 완전히 철수해 무등산이 오롯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탐방로 정비 등 무등산 정상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무등산 정상에서 만나니 모두의 얼굴에 웃음과 행복감이 묻어난다"며 "호남정맥의 정기가 모이고 유서 깊은 명산인 무등산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찾는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INSIDE NEWS

주입담 저수율 20% 붕괴 ▶2면
광주 대학병원 전공의 합격취소 파문 ▶6면

정부, 코로나 일상회복 이달 말 로드맵 발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나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는데, WHO가 4월 말 열리는 회의에서 PHEIC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한다는 차원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www.왕인문화축제.kr

2023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

영암왕인문화축제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3

3.30.(목)~4.2.(일)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개막행사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 : 3.30.(목) 19:00 /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

K-컬처, 왕인!

-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
- 왕인 천자문 월드
- 북카페 '왕인의 숲'
- 플로깅 역사투어 '왕인산보(散步)'
- 박사왕인 행차길놀이
- 외국인 미션투어 '헬로 왕인'
- 글로벌 왕인투어
- '어서와~ 영암은 처음이지?'

K-웰니스, 영암

- 영암 전통 민속놀이
- 오감만족 힐링 체험
- 왕인의 숨결! 영암 문화 체험
- 구림벚꽃길 걷기대회
- 구림마을 자전거투어
- 구림마을 벚꽃여행
- 기찬영암 관광투어
- 영암 푸드·쇼핑랜드

대표프로그램

테마퍼레이드 'K-레전드, 왕인의 귀환'

4.2.(일) 14:00~15:30

상대포역사공원 → 구림마을 → 왕인박사유적지

야간문화행사

3.30.(목) 19:30~21:00	개막 특집방송 'K-트롯트 콘서트'
3.31.(금) 19:00~21:00	국립공원월출산 생태탐방원 영암 유치기원 음악회
3.31.(금)~4.1.(토) 19:00~20:00	구림마을 달빛야행
4.1.(토) 20:00~21:00	달빛 디제잉파티 '새난파진가'
4.2.(일) 18:00~20:30	폐막행사 '구림의 밤'
3.30.(목)~4.2.(일)	왕인로 빛의 정원 빛을 품은 구림마을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061)470-2346~50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 061)470-2259
영암군홈페이지 : www.yeongam.go.kr

www.왕인문화축제.kr 왕인문화TV
www.facebook.com/wanginfesta www.instagram.com/wanginfesta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남도 한국관광공사